

전남 농지연금 월 지급금 70만원 돌파

담보 농지 값 1억700만원 '최하위권' ... 땅값 낮아 가입 건수는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전남지역 농지연금 월 지급금이 처음으로 70만원을 넘겼다.

전남은 담보가 되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2년 연속 가입 건수가 줄어왔다.

2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농지연금 신규 가입은 광주·전남 62건을 포함해 전국 593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신규 가입은 지난 1월 11건에 이어 2월 20건, 3월31건 등으로 매달 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 신규 가입이 136건으로 전체의 22.9%를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11건), 경남(89건), 충남(72건), 전남(62건), 전북(53건), 충북(39건), 강원(25건), 제주(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갖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 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전남은 담보가 되는 농지 가격이 다른 지

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농지연금 가입이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광주·전남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 2019년 377건 이후 2020년 270건, 지난해 233건 등으로 줄어왔다.

농도(農道) 광주·전남에서의 농지연금 가입은 지난해 제주(39건), 강원(107건), 충북(146건)에 이어 9개도 가운데 4번째로 적었다. 반면 경기(382건)와 경북(347건), 전북(302건) 등의 한 해 신규 가입은 300건을 넘겼다.

이처럼 전남 농지연금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낮은 농지 가격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평균 담보 농지 가격은 1억700만원으로, 전북(1억600만원)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들었다. 전국 평균 농지 가격은 2억5100만원으로, 전남은 1억4400만원이 뒤졌다.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4억4600만원)였으며, 경기(3억5100만원), 강원(3억3100만원), 경남(3억300만원), 충남(2억4700만원), 충북·경

북(각 2억4000만원) 등 순으로 높았다.

담보가 된 땅값이 적은 탓에 광주·전남지역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은 지난해 처음 70만원을 넘겼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은 77만8000원으로, 전년(62만3120원)보다 24.9%(15만4880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6.6%(107만7927원→114만9000원)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광주·전남 농지연금 지급금은 전국 평균보다 37만1000원이나 적었으며, 전북(46만8000원)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농지연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로 낮춘 것이다.

그 결과 가입 연령 완화를 시작한 지난달 18일부

터 이달 21일까지 전국 신규 가입 건수 294건 가운데 19.7%에 해당하는 58건이 '65세 미만' 가입자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신규 36건 중 27.8%에 달하는 10건이 65세 미만이 가입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는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광주·전남 2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16만1000가구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다.

지난해 전남 신규 가입자 233명을 연령별로 나눠 보니 65세~69세(29.2%·68명)와 70세~74세(30.0%·70명)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5세~79세 23.2%(54명), 80세~84세 11.2%(26명), 85세 이상 6.4%(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9.56 (-0.42)
↓ 코스닥	927.11 (-7.58)
↑ 금리(국고채 3년)	2.747(+0.242)
↑ 환율(USD)	1227.30(+8.50)

남구 노대마을 도시가스 공급

해양에너지, 상반기 진행

해양에너지는 올해 상반기 남구 노대마을(노대동 357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노대마을 도시가스 공급은 지난 2020년부터 검토돼 왔다.

노대마을의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 확대가 기대된다.

해양에너지 관계자는 "광주 남구와 상호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지역민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송중욱(왼쪽) 은행장과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이 28일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10억원 특별출연 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코로나 위기 극복 10억 특별 출연

광주은행, 광주신보와 협약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 출연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총 150억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은 2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서 광주신보와 '2022년 상생발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중욱 은행장과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광주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광주신보에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지난 2018년부터 광주은행이 광주신보에 출연한 규모는 총 54억원에 달한다.

광주신보는 이를 지원으로 이번엔 총 150억원 특

별보증을 시행한다.

광주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료율은 연간 0.8~1.0%이다.

광주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0.5%포인트 감면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은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협약보증 신청은 광주신보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한 후 예약일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송 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함께 상생 발전을 이루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농협, 아열대과일 비파 '오매향' 첫 출하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8일 완도군 군외면 한 비파 농장에서 전남 아열대과일 브랜드 '오매향' 비파에 대한 올 첫 출하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김진수 농협완도군지부장,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산 비파는 농업회사법인 영글어농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로 납품된다.

첫 출하 물량은 70kg이며 오는 5월 말까지 시설 하우스 재배물량 약 4t이 공급된다.

완도군은 고소득작물의 하나로 아열대 과일인 비

파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114개 농가가 35ha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전남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물량은 7개 농가의 2ha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7t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비파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A, 칼륨 등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남농협은 건강하고 맛있는 전남산 비파가 신선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아열대과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식품위생업소 1% 저리 용자 지원

식품진흥기금 활용 최대 4억

전남도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에 연 1% 저리로 용자를 지원한다.

식품위생업소 용자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기계·설비, 주방 등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전남에는 식품접객 3만8292개소, 식품제조·가공 809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2096개소 등 총 4만 8478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다. 이자는 '연 1% 고정금리'이며 용자비용은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용자한도액은 시설개선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및 인증 희망업소 4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은 1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지정 희망업소 3000만원이다. 운영자금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용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용자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낮추고, 용자 지원 대상도 당초 시설개선자금에서 운영자금까지 확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농림부·aT 300억 용자지원

업체당 10억 한도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 용자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300억원 규모인 이 정책자금 사업은 올해 새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경매, 입찰, 정가·수의 매매에 참여하는 중도매(벌)인 및 매매참가인이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용자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다. 올해 온라인거래 계획금액에 따라 업체당 10억원 한도까지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at.or.kr)와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atbid.co.kr/atf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재 우편·방문·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300억원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특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다

매매 - 44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은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특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